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4남, 6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개척자들 재건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오늘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열립니다. (오후집회 전까지 운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교회의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당회가 다음 주일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 연합속회를 12일(금)11:00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유아세례, 세례, 입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교육은 13일(토) 오후 2시 도서관, 성인세례교육은 사랑방사무실, 입교교육은 20일(토) 오후 2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1월 첫 주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때 '떼제 찬양과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피아노 연주자, 기타 연주자, 싱어, 스탭 등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김기석 목사의 새 책, 「흔들리며 걷는 길」 (포이에마)이 나왔습니다.

대림절기입니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줄이면서 큰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사 40:1~11 / 시 85:1~2, 8~13 벤후 3:8~15a / 막 1:1~8
--

마 7:24-29

오늘 식당 봉사 : 권미숙 노성희 조경자 고향준 윤찬란 김윤수 김대근
 다음 주 식당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경원 박경선 김현동 송동준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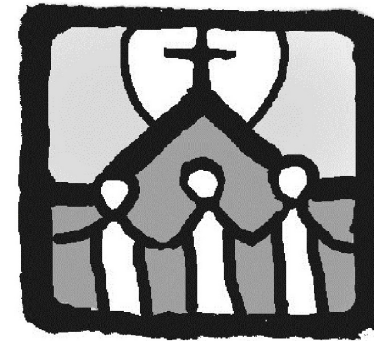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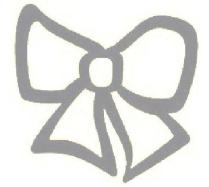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무언가를 채우기에 급급해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탄 구유 앞에 멈추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온통 '나'로 가득 차 '너'를 위한 빈자리 하나 없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비우고 비워 늘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놓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잠시 맡겨준 권력을 사되게 사용하는 이들이 더 이상 없게 해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섬겨야하는 이가 자리를 이용해 부귀영화를 탐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권미정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진
김혜정	김정훈	이진영	김종락	박영신	김종철	고영애	김종훈	지명주
김중수	이순정	김현주	김홍기	문금석	문홍일	민지희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상욱	박준희	이기분	방극숙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송형운	하미림	신영희	신진식	변혜정	안보혜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미경	오미숙	오진훈	노순옥	원인혜	이계선	이소순
이광용	형인순	이민범	공재량	이봉옥	이성범	권현숙	이예서	이용현
이우원	옥귀희	이은실	이재삼	전정현	이재훈	이주경	이진영	한양미
임서영	장기욱	장재영	김재영	전인섭	정연희	정영우	김지윤	정완수
김재광	조경자	조순덕	최미자	최종원	하정석	이명희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홍소형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강순배 문홍일 이미혜 신영희 신진식 변혜정 심상숙 이왕준 송상경
 이재문 한훈식 권채영 무명9

녹색꿈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정진 김혜정 박호규 강영님 신영희 정수복 장미란
 무명

백혜숙	박성희	오송경	연 속 회
신진식	최경미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곽혜자	
노순옥	진정숙	노순옥	
박홍재	박홍재	김윤수	
권미숙	박미영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유금주	
곽권희	윤수진	윤미경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정영선	홍춘숙	정영선	
박혜경	박혜경	정현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시래기

- 도종환

저것은 맨 처음 어둔 땅을 뚫고 나온 잎들이다
 아직 씨앗인 몸을 푸른 싹으로 바꾼 것도 저들이고
 가장 바깥에 서서 흙먼지 폭우를 견디며
 몸을 열 배 스무 배로 키운 것도 저들이다
 더 깨끗하고 고운 잎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가장 오래 세찬 바람 맞으며 하루하루 남아간 것도
 저들이고 마침내 사람들이 고갱이만을 택하고 난 뒤
 제일 먼저 버림받은 것도 저들이다
 그나마 오래오래 푸르른 날들을 지켜온 저들을
 기억하는 손에 의해 거두어져 겨울을 나다가
 사람들의 까다로운 입맛도 바닥나고 취향도 곤궁해졌을 때
 잠시 옛날을 기억하게 할 짧은 허기를 메우기 위해
 서리에 젖고 눈 맞아가며 견디고 있는 마지막 저 헌신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진실한 말을 하려 노력하며 사십시오. 진실한 말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아멘. 바른 말보다는 나를 위한 말을 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이 땅과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4남, 6여선교회 주관 예배 설교 : 오정선 목사 (미국 보스턴대학)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홍순구	최희영 선생 최재욱 집사

12	영접위원	김인걸 송형운 주경진 정현숙 하미림 김현주
	헌금위원	한완식 김경혜

믿음으로 읽는 글

역설(逆說)을 역설(力說)하다

교회 문간방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너무 외로웠다. 하루는 너무 외로웠고 하루는 고통스럽게 아팠고 또 하루는 너무 억울했다.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현실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었다. 그는 전쟁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더 못했고 전쟁 때문에 병이 들었다. 혼자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전쟁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전쟁 앞에서 그의 노력은 속수무책이었다. 그 자신만 전쟁과 가난의 폭풍을 피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었다. 아무리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위로를 해보아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볼수록 허무하고 괴롭고 고달픈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어찌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객지로 나간 것부터가 허황되고 헛된 마음이 아니었을까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 죽기도 살기도 힘겹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교회에 방 한 칸을 얻어 사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새벽이면 일어나 종을 쳤다. 겨울이면 종 줄에 성애가 끼고 꼬장꼬장 얼어 손이 무척 시렸다. 그래도 그는 장갑을 끼지 않고 종을 쳤다. 맨손으로 종 줄을 조절해서 잡아당겨야 가장 좋은 종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을 치다 보면 깨끗한 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별들과 종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권정생은 새벽마다 종을 치며 마음속 기도를 드리고 그 아름다운 종소리에 괴롭고 고달픈 마음을 날려 보냈다.

외롭고 힘겨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어느 한 목사가 “권 선생님의 생활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꼭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낸다. 목사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다가 권정생을 보고 간 뒤였다. 목사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권정생은 이 편지를 읽고 ‘거지 나사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더 정확히는 ‘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권정생은 세상에 비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거지생활을 시작했고

거지로 떠돌며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자신 속에 있는 알맹이만은 절대 굶하지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그렇다 해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끄러움을 어찌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거지였음을 밝히는 것을 꺼렸다. 그런 마음일 때 그는 ‘거지 나사로’ 같다는 편지를 받고 ‘거지’였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 나는 부자의 문간에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이다.

분수를 지킬 줄 모르면 그 이상 불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처지에 알맞게 행동하고 지나친 욕심을 버린다면 타인에게 끼치는 해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나사로와 입장을 함께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거지로 떠돌던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거지를 벗어나지 않고 거지 나사로와 “입장을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것은 앞으로도 거지처럼 살겠다는 말이요, 가난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비록 구걸을 하더라도 욕심 없이 가난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

권정생은 “갈릴리의 가난한 시골에 태어나서 33년의 생애를 통해 예수가 이루어놓은 삶의 정상은 바로 가난한 삶”이라 말한다. 예수는 “그 가난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굶주려야 하고, 지금 울어야 하고, 미움을 사서 내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철저한 아픔을 다 겪어야 한다.”고 했다. 예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역설(逆說)을 역설(力說)”했다. ...

세상을 ‘거꾸로’ 보니 권정생은 싸움을 일으키는 부자보다 평화로운 거지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가 높은 보좌에 임금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 눈앞에 예쁘게 핀 꽃보다 거름이 되어준 똥에게로 눈길이 갔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것이다.

- 이기영, 「작은 사람 권정생」 (단비) 중에서